

2017년 4월 25일 I Global Asset Research

# 시황저격

## KOSPI200 정기변경 편출입 예상종목과 투자전략 업데이트

## KOSPI200 정기변경 투자전략: 1) D-20일, 2) 실적 모멘텀 보유 신규편입 종목에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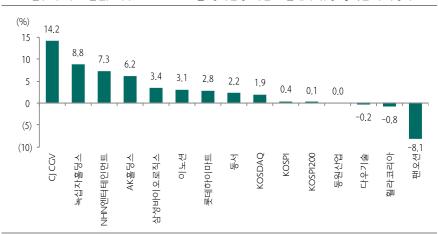
지난 3/30일 발간된 KOSPI200 6월 정기변경 관련 1차 자료를 통해 12개의 투자유망 종목군을 제시한바 있다(팬오션/CJ CGV/이노션/롯데하이마트/휠라코리아/AK홀딩스/동서/동원산업/삼성바이오로직스/녹십자홀딩스/NHN엔터테인먼트/다우기술). 다수의 세미나와 컨퍼런스 콜 등을 통해 확인했던 액티브/패시브 매니져들의 뜨거웠던 반응만큼이나, 관련 종목군의 투자성과 역시 탁월했다.

이에, 1차 자료 발간 이후 새로이 가세한 종목별 개별이슈를 고려해 6월 KOSPI200 구성종목 변화를 재차 가늠해봤다. 편출입 후보군 도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투자전략의 효용성을 가다듬기 위함이다.

(표 5)를 통해 적시한 바와 같이, 편출입 예상종목군의 변화는 1차 분석 당시와 대체로 유사했다. 아울러, 1) 중립이상의 실적 눈높이, 2) 기관 수급력 부재(수급 빈집), 3) 6월 KOSPI200 정기변경간 신규편입 가능성 등이 여전하다는 점에선, 상기 투자 유망 종목군의 전술적 가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틈새장세 극복을 위한 이벤트 플레이 대안으로서 관련 종목군을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최근 3개년간 KOSPI200 정기변경일(D일) 전후 편출입 종목 포트폴리오의 투자 성과를 살펴보면, 1) 신규편입 포트폴리오가 전체 시장 및 편출 종목군을 확연히 앞서는 퍼포먼스를 기록했고, 2) 통상 정기변경일 20 거래일 이전 시점부터 신규 편입 예상 종목군에 대한 정기변경 사전포석격 매입수요가 유입되며 주가 차별화를 유인했음이 확인된다. 이것이 KOSPI200 정기변경 이벤트 플레이 전략의 요체다. 투자전략 견지에선 달라진 KOSPI200 정기변경 방법론을 토대로 편출입 유력 종목군을 가늠하여 D-20일 이후 시점에서의 총력전을 준비하는 것이, D-28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의 최선의 전략대응일 수 있겠다.

#### 3/30일(1차 자료 발간) 이후 KOSPI200 6월 정기변경 이벤트 플레이 유망 종목군 투자성과



자료: KRX, 하나금융투자

#### Investment Idea

## **Equity/Derivatives**



RA 문다솔 02-3771-7509 dasolmoon@hanafn.com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KOSPI200 정기변경 편출입 예상종목과 투자전략 업데이트

## 2017년 6월 KOSPI200 산업군 분류 및 종목 선정기준 변경 예정

KOSPI200 지수 산출방식과 종목 편출입 기준이 2017년 6월 정기변경(6/9일)을 기해 대폭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 3/15일 한국거래소는 KOSPI200 지수 산출 방법론과 종목선정 기준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2015년 4월 지수 혁신을 위한 시장 참가자 간담회 개최 이후 근 2년만의 제도변화인 셈이다. 산출방식 개편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KOSPI200 업종분류 방식이 종전의 표준산업분류 방식에서 전세계적으로 널리 통용 중인 글로벌 산업분류(GICS,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방식으로 변경된 다. 비제조업, 제조업을 양대 축으로 한 8개의 산업군 분류 방식에서 GICS 경제섹터를 참조한 에너지, 소재, 산업재, 자유소비재, 필수소비재, 건강관리, 금융/부동산, 정보기술/통신, 유틸리티 9개 산업군으로 재편된다.

둘째, 종목 편입기준이 종전의 해당 산업군 내 누적시가총액 70% 기준에서 80%로 상향조정됐다. 정보기술(IT)/통신 섹터 내 종목별 누적시가총액을 계산해보면, 절대강자 삼성전자(산업군 내 시총 비중 62.7%)의 존재로 말미암아,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산업군 내 시총비중 7.8%)에서 70% 한도가 채워졌다. 여타 종목들의 경우 시장을 대표하는 주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섹터를 잘못 만난 탓에 KOSPI200 신규 편입기회가 제한된 사례가 빈발했던 것이다. 80%로 편입기준이 상향조정될 경우, 섹터 내 시총 순위 3, 4위인 NAVER와 SK텔레콤의 우선 편입이 확정된다. 지수 효용성 제고를 위한 긍정적 변화로 평가 가능하다.

셋째, 잦은 종목 편출입을 제한하는 버퍼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종목 잔류 여부를 판단하는 버퍼 1 기준은 종전대로 기존종목 시총 순위의 해당 섹터 내 종목수 비중의 110% 이내 규정이 유지된다. 신규종목 추가 편입을 결정하는 버퍼 2 기준은 신규종목 시총 순위의 해당 섹터 내 종목수 비중 90% 이내로 기존과 같다. 잔여종목 추가 편입을 위한 버퍼 3 기준이 달라졌는데, 버퍼 1, 2 적용 후에도 구성종목이 부족할 경우 그간엔 기존종목이 잔류했지만 이후부턴 산업군 분류와 상관없이 기존종목에서 시총 순으로 잔여종목이 채워진다.

넷째, KOSPI200 종목에 적용되던 유동비율(Free float)이 조정된다. 종전엔 5% 단위 올림기준을 적용했으나(실제 31.5%의 경우 35%로 적용), 6월 정기변경부턴 1% 단위로 실제비율(실제 31.5%의 경우 32%로 적용)을 적용하게 된다. 유동비율 조정 역시도 매년 1회에서6월, 12월 2회 실시로 달라진다. 다만, 기존종목의 경우 ±10%pt를 상회하는 유동비율 변화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지수 트래킹 명목의 불필요한 매매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방어장치다.

다섯째, 신규상장 특례요건이 변경된다. 그간 KOSPI200 신규상장 특례편입을 위해선 KOSPI 시가총액 대비 1% 초과와 이의 15 매매일간 지속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했다. 신규상장 종목의 지수 진출을 막는 과도한 장애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6월 정기변경을 기해 KOSPI 시총 순위 50위 이내로 달라진다. 신규상장 특례편입과 정기변경 특례편입 기준이 통일된단 의미다. 이로써 전체 시총 순위 25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5/12일 상장예정인 넷마블게임즈의 6월 KOSPI200 정기변경 신규편입 가능성은 확정적이나, 67위인 두산 밥캣은 나머지 기간 중 50위 이내로의 주가상승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신규편입 가능성은 희박하다.

## 표 1. 산업군 개선 전(종전의 표준산업분류 방식) 종목 분포

## 표 2. 산업군 개선 후(GICS 경제섹터 반영) 종목 분포

산업	군(8개)	종목수	시총 비중(%)
	농림어업	5	0.1
	광업	1	_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서비스업 금융업 통신업	10	3.1
비제조업	건설업	31	1.8
	서비스업	196	22.9
	금융업	52	12.9
	통신업	3	2.6
저	조업	447	56.5
7	합계	745	100.0
THZ: VDV AH HJ.Q.E	≣TL		

산업군(9개)	종목수	시총 비중(%)
에너지	7	2.4
소재	160	9.4
산업재	158	14.8
자유소비재	164	14.6
필수소비재	69	9.6
헬스케어	50	2.6
금융/부동산	56	13.1
정보기술/통신	67	30.2
유틸리티	14	3.2
 합계	745	100.0
자료: KRX, 하나금융투자	•	

자료: KRX, 하나금융투자

## 표 3. 종목 선정기준 중 누적시가총액 기준 변화 영향 분석

구분	상세
70% 유지 시	- 소수종목만 기준을 충족하여 기준의 효용성이 낮고 신규종목의 편입장벽이 과도하게 높음 - 85종목만 기준을 충족. 신규편입 최소 시총은 8천억원
90% 상향 시	- 중소형주가 대거 선정되어 KOSPI200의 대표성이 약화 - 230종목이 기준을 충족하며, 이중 30종목이 시총 5천억원 미만
시장 커버리지	- 지수개발 당시(1994년) KOSPI200의 시장 커버리지는 70%가 목표였으나, 현재 전체 시장 커버리지는 80% 후반 - 80% 상향조정 시 시장 커버리지 89.2%로 상승 예상

자료: KRX, 하나금융투자

## 표 4. 추가적 종목 편출입을 규정하는 버퍼기준 변경 예정

구분	개선사항
버퍼 1 (기존종목)	기존종목의 시가총액 순위가 해당 산업군 종목수의 110% 이내 → 종목 유지
버퍼 2(신규종목)	신규종목의 시가총액 순위가 해당 산업군 종목수의 90% 이내 → 종목 편입
변경 버퍼 3(잔여종목)	버퍼 1,2 적용 후 종목수가 200종목에 미달할 경우, 산업군 구분 없이 미선정된 기존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순으로 잔여 종목수만큼 선정
기존 버퍼 3 (잔여종목)	버퍼 1,2 적용 후 산업군별로 기존 종목수보다 부족할 경우 → 기존종목이 110%를 벗어나도 잔여 종목수만큼 해당 산업군에서 추가로 편입

## 2017년 KOSPI200 정기변경, 산업군별 종목 편출입 예상

궁금한 점은 이번 기준 변경을 감안한 6월 KOSPI200 정기변경의 신규 편출입 예상 종목군 판단이다. 이에, 달라진 규정과 거래소가 분류한 종목별 산업군 구분을 참고해 6월 KOSPI200 구성종목 변화를 가늠해봤다. GICS 산업분류 도입과 산업군 내 누적시가총액 기준의 상향, 추가 편출입을 위한 버퍼룰 변경 등의 대대적 제도 변경조치가 있었던 만큼, 다수의 종목 편출입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다만, 5월말 거래소측 정기심사에 따른 구성종목 교체내역 확정 공지까지의 주가, 시가총액, 거래대금 등의 추가적인 변화 여지를 고려할 경우, 실제 확정종목과 하기 적시한 예상 후보 군과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양지할 필요가 있겠다. 맹목적인 종목대응보단 편출입 예상 유력 후보군에 초점을 맞춘 선별적인 대응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1) 산업재 섹터에선 팬오션, GS건설, LIG넥스원, 대한전선이 신규편입되고, 한진중공업, 알루코, 벽산, S&T중공업 등이 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자유소비재 섹터에선 CJ CGV, 이노션, 롯데하이마트, 휠라코리아, 하나투어, 스카이라이프, 영원무역홀딩스 등이 신규편입되고, 세방전지, SBS, 경방, 현대리바트, 일신방직, 조광피혁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 3) 소재 섹터에선 AK홀딩스, 화승인더의 신규편입을, 한국철강, 삼광글라스, 국도화학의 종 목편출을 예상한다.
- 4) 필수소비재 섹터에선 동서, 동원산업, 잇츠스킨이 신규편입되고, 팜스코, 에이블씨엔씨, 하이트진로홀딩스 등이 제외될 것으로 판단한다.
- 5) 건강관리 섹터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녹십자홀딩스, JW홀딩스의 신규편입 가능성이 유력시되며, 서흥과 일동홀딩스가 그 자리를 비워줄 것으로 예상한다.
- 6) 정보기술/통신 섹터에선 5/12일 신규상장 넷마블게임즈, NHN엔터테인먼트, 다우기술이 신규편입되고, 대덕전자, 한솔테크닉스가 편출 제외될 공산이 크다.
- 7) 에너지, 금융/부동산, 유틸리티 섹터 내 구성종목 변경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표 5. 2017년 6월 KOSPI200 정기변경 종목 편출입 예상

편입	구분	편출
팬오션, GS건설, LIG넥스원, 대한전선	산업재	한진중공업, 알루코, 벽산, S&T중공업
<b>CJ CGV, 이노션</b> , <b>롯데하이마트, 휠라코리아</b> , 하나투어, 스카이라이프, 영원무역홀딩스	자유소비재	세방전지, SBS, 경방, 현대리바트, <b>일신방직, 조광피혁</b>
<b>AK홀딩스</b> , 화승인더	소재	한국철강, <b>삼광글라스</b> , <b>국도화학</b>
동서, 동 <del>원</del> 산업, 잇츠스킨	필수소비재	팜스코, 에이블씨엔씨, 하이트진로홀딩스
<b>삼성바이오로직스</b> , <b>녹십자홀딩스,</b> JW홀딩스	건강관리	서흥, 일동홀딩스
(넷마블게임즈), NHN엔터테인먼트, 다우기술	정보기술/통신	대덕전자, 한솔테크닉스
無	에너지	無
無	금융/부동산	無
無	유틸리티	無

주: 4/24일 종가. 적색 표기는 편입 유력, 청색 표기는 편출 유력 종목군. 시가총액, 거래대금 반영 기준. 종목별 경제섹터 분류는 KRX 고시 GICS 기준 섹터구분을 반영 자료: KRX, 하나금융투자 시황저격

표 6, 2017년 6월 KOSPI200 정기변경 구성종목 예상

구분	산업재	자유소비재	소재	필수소비재	건강관리	금융/부동산	정보기술/ <del>통</del> 신	에너지	유틸리티
종목수	40	38	33	29	18	18	18	4	2
	삼성물산	현대차	POSCO	아모레퍼시픽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한국전력
	SK	현대모비스	LG화학	KT&G	한미사이언스	신한지주	SK하이닉스	S-Oil	한국가스공사
	LG	기아차	롯데케미칼	LG생활건강	한미약품	KB금융	NAVER	GS	
	현대중공업	LG전자	고려아연	아모레G	유한양행	삼성화재	SK텔레콤	한국쉘석유	
	(현대로보틱스)	강원랜드	현대제철	이마트	녹십자	하나금융지주	(넷마블게임즈)		
	한국항공우주	코웨이	효성	CJ제일제당	영진약품	우리은행	삼성에스디에스		
	현대글로비스	한국타이어	한화케미칼	오리온	녹십자홀딩스	기업은행	LG디스플레이		
	CJ	롯데쇼핑	금호석유	BGF리테일	제일약품	한화생명	KT		
	현대건설	한온시스템	OCI	GS리테일	JW중외제약	삼성카드	삼성SDI		
	CJ대한통운	한샘	영풍	동서	부광약품	동부화재	엔씨소프트		
	KCC	현대백화점	코오롱인더	롯데제과	종근당	미래에셋대우	LG유플러스		
	에스원	만도	SK케미칼	오뚜기	대웅제약	현대해상	삼성전기		
	현대산업	호텔신라	대한유화	농심	동아에스티	NH투자증권	LG이노텍		
	삼성중공업	현대위아	동원시스템즈	롯데칠성	일양약품	BNK금융지주	NHN엔터테인먼트		
	대림산업	제일기획	쌍용양회	한국콜마	동아쏘시오홀딩스	삼성증권	다우기술		
	포스코대우	신세계	SKC	현대그린푸드	한올바이오파마	한국금융지주	동부하이텍		
	한전KPS	CJ CGV	태광산업	SPC삼립	JW홀딩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일진머티리얼즈		
	두산중공업	영원무역	풍산	하이트진로	보령제약	메리츠종금증권	신도리코		
	한화	금호탁이어	동국제강	코스맥스					
	한화테크윈	현대홈쇼핑	세아베스틸	삼양홀딩스					
· 동목명	대우건설	GKL	한솔케미칼	동원산업					
	두산	쿠쿠전자	휴켐스	삼양사					
	삼성엔지니어링	이노션	롯데정밀화학	롯데푸드					
	대한항공	넥센타이어	AK홀딩스	대상					
	팬오션	한세실업	락앤락	잇츠스킨					
	GS건설	롯데하이마트	동양	동원F&B					
	LS	쌍용차	고려제강	무학					
	LIG넥스원	휠라코리아	후성	빙그레					
	대한전선	한섬	한일시멘트	남양유업					
	현대로템	하나투어	화승인더						
	두산인프라코어	스카이라이프	세아제강						
	SK네트웍스	영원무역홀딩스	남해화학						
	현대엘리베이	S&T모티브	유니드						
	아이에스동서	대교							
	현대미포조선	한라홀딩스							
	LS산전	LF							
	LG상사	에스엘							
	한전기술	동아타이어							
	LG하우시스								
	한국단자								

주: 적색 표기는 KOSP1200 신규편입 예상 종목. 4/24일 종가, 시가총액, 거래대금 반영 기준. 종목별 경제섹터 분류는 KRX 고시 GICS 기준 섹터구분을 반영 자료: KRX, 하나금용투자 **하나금용투자** 

## KOSPI200 정기변경 투자전략: 1) D-20일, 2) 실적 모멘텀 보유 신규편입 종목군

KOSPI200을 추종하는 전체 벤치마크 자산은 거래소 추산 60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중 ELS 등 장외 구조화상품 관련 부분 27조원을 제외하고 보면, 대략 30조원 가량의 KOSPI200 BM 추종 자금이 역산된다(ETF 10조원, 인덱스 펀드 6조원 등). 6월 동 지수 정기변경을 기해 대규모의 종목 편출입 수요가 유발될 수 있단 의미다.

최근 3개년간 KOSPI200 정기변경일 전후(60 거래일) 편출입 종목 포트폴리오의 투자성과 (시가총액 가중평균 기준)를 살펴보면, 1) 신규편입 포트폴리오가 전체 시장 및 편출 종목군을 확연히 앞서는 퍼포먼스를 기록했고, 2) 통상 정기변경일 20 거래일 이전 시점부터 신규편입 예상 종목군에 대한 지수 정기변경 사전포석격 매입수요가 유입되며 주가 차별화를 유인했다. 투자전략 견지에선 달라진 KOSPI200 정기변경 방법론을 토대로 편출입 유력 종목군을 가늠하여 D-20일 이후 시점을 준비하는 것이 동 이벤트를 활용하는 최선의 대응전략일 수 있겠다.

특히, KOSPI200 신규편입 효과가 개별 실적 모멘텀(12개월 예상 영업이익 기준)과 결합해수급 방향선회에 일조할 수 있는 종목군의 경우, 그 성과가 가일층 배가될 것으로 예상한다. 6월 정기변경 신규편입 예상 유력 후보군 가운데 예상 실적과 수급 여건을 고려해 매매대상을 압축해본다면, 1) 산업재 섹터에선 팬오션, 2) 자유소비재 섹터에선 CJ CGV와 이노션, 3) 소재에선 AK홀딩스, 4) 필수소비재에선 동서와 동원산업, 5) 건강관리 섹터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녹십자홀딩스, 6) 정보기술/통신 섹터에선 NHN엔터테인먼트와 다우기술이추려진다. 틈새장세 극복의 또 다른 대안으로서 관련 종목군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림 1. 2016년 KOSPI200 정기변경(D)일 전후 60일간 편출입 포트폴리오(시가총액 가중방식) 퍼포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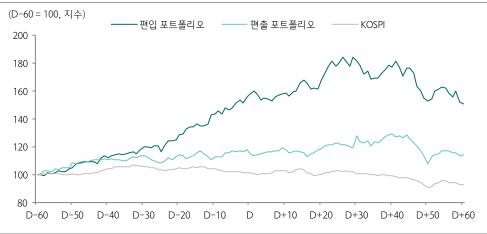
통상, 정기변경일 D-20일 시점부터 KOSPI200 편입 종목군의 차별적 성과 가 구체화



자료: KRX, Dataguide, 하나금융투자

통상, 정기변경일 D-20일 시점부터 KOSPI200 편입 종목군의 차별적 성과 가 구체화

그림 2. 2015년 KOSPI200 정기변경(D)일 전후 60일간 편출입 포트폴리오(시가총액 가중방식) 퍼포먼스



자료: KRX, Dataguide, 하나금융투자

그림 3. 2014년 KOSPI200 정기변경(D)일 전후 60일간 편출입 포트폴리오(시가총액 가중방식) 퍼포먼스

통상, 정기변경일 D-20일 시점부터 KOSPI200 편입 종목군의 차별적 성과 가 구체화



자료: KRX, Dataguide, 하나금융투자

#### 그림 4. 팬오션 실적 및 기관 수급 모멘텀



주: 기관 순매수강도는 기관 누적 순매수/시가총액으로 측정

자료: Quantiwise,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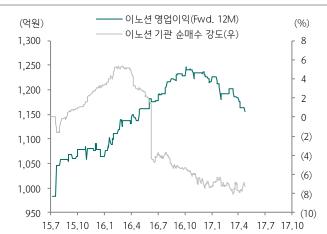
#### 그림 5. CJ CGV 실적 및 기관 수급 모멘텀



주: 기관 순매수강도는 기관 누적 순매수/시가총액으로 측정

자료: Quantiwise, 하나금융투자

### 그림 6. 이노션 실적 및 기관 수급 모멘텀



주: 기관 순매수강도는 기관 누적 순매수/시가총액으로 측정 자료: Quantiwise, 하나금융투자

## 그림 7. 롯데하이마트 실적 및 기관 수급 모멘텀



주: 기관 순매수강도는 기관 누적 순매수/시가총액으로 측정

자료: Quantiwise, 하나금융투자

#### 그림 8. 휠라코리아 실적 및 기관 수급 모멘텀



주: 기관 순매수강도는 기관 누적 순매수/시가총액으로 측정 자료: Quantiwise, 하나금융투자

#### 그림 9. AK홀딩스 실적 및 기관 수급 모멘텀



주: 기관 순매수강도는 기관 누적 순매수/시가총액으로 측정 자료: Quantiwise, 하나금융투자



#### 그림 10. 동서 실적 및 기관 수급 모멘텀



주: 기관 순매수강도는 기관 누적 순매수/시가총액으로 측정

자료: Quantiwise,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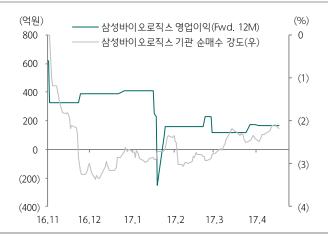
#### 그림 11. 동원산업 실적 및 기관 수급 모멘텀



주: 기관 순매수강도는 기관 누적 순매수/시가총액으로 측정

자료: Quantiwise, 하나금융투자

## 그림 12.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및 기관 수급 모멘텀



주: 기관 순매수강도는 기관 누적 순매수/시가총액으로 측정 자료: Quantiwise,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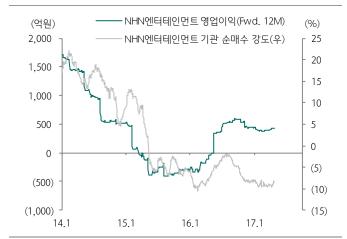
#### 그림 13. 녹십자홀딩스 실적 및 기관 수급 모멘텀



주: 기관 순매수강도는 기관 누적 순매수/시가총액으로 측정

자료: Quantiwise, 하나금융투자

#### 그림 14. NHN엔터테인먼트 실적 및 기관 수급 모멘텀



주: 기관 순매수강도는 기관 누적 순매수/시가총액으로 측정 자료: Quantiwise, 하나금융투자

#### 그림 15. 다우기술 실적 및 기관 수급 모멘텀



주: 기관 순매수강도는 기관 누적 순매수/시가총액으로 측정 자료: Quantiwise, 하나금융투자



## (1) 산업재(Industrials)

산업재 섹터 내 누적시가총액 기준 80%와 거래대금 기준 섹터 내 85%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은 31위 대한전선까지다. 현재 KOSPI200 내 산업재 섹터 해당 종목은 40개로 90%이내는 36위 현대미포조선, 110% 이내는 44위 한국단자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관련 기준에 의거할 경우, 팬오션/GS건설/LIG넥스원/대한전선의 신규편입을, 한진중공업/알루코/벽산/S&T중공업의 편출제외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겠다. 시장 투자가의 관심이 뜨거운 종목이지만 두산밥캣(전체 시총 67위)의 신규상장 특례적용 여지는 극히 희박하다.

1차 자료(3/30일) 발간 이후 두 가지 업데이트 사항이 추가됐다. 1) 기존 K200 종목이었던 대우조선해양이 일련의 크레딧 리스크로 말미암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는 K200의 우선적 편출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2) 또한, 현대중공업 인적분할로 인해 기존 현대중공업과 신설 현대로보틱스의 KOSPI200 잔류가 확정됐다. 5/11일 수시변경을 통해 현대로보틱스의 K200 신규편입과 대우조선해양의 편출배제 작업이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표 7. 산업재 섹터 KOSPI200 구성종목 편출입 여부 검토 (1)

종목명	KOSPI 시총 순위	섹터 시총 <del>순</del> 위	평균 시총 (십억원)	평균 거래대금 (십억원)	종목 시총 비중(%)	누적 시총 비중(%)	현 K200 여부	6월 K200 판단
삼성물산	6	1	25,570	63.0	14.0	14.0	0	잔류
SK	16	2	15,608	23.3	8.5	22.5	0	잔류
LG	24	3	10,918	17.3	6.0	28.5	0	잔류
현대중공업	26	4	10,733	32.1	5.9	34.3	0	잔류
한국항공우주	41	5	6,726	37.2	3.7	38.0	0	잔류
현대글로비스	42	6	6,185	16.8	3.4	41.4	0	잔류
CJ	46	7	5,441	13.0	3.0	44.4	0	잔류
현대건설	57	8	4,600	17.7	2.5	46.9	0	잔류
CJ대한통운	60	9	4,365	7.2	2.4	49.3	0	잔류
KCC	64	10	3,968	10.5	2.2	51.5	0	잔류
에스원	66	11	3,661	6.3	2.0	53.5	0	잔류
두산밥캣	67	12	3,629	24.6	2.0	55.4		
현대산업	69	13	3,334	14.7	1.8	57.3	0	잔류
삼성중공업	70	14	3,066	19.8	1.7	58.9	0	잔류
대림산업	75	15	2,863	12.3	1.6	60.5	0	잔류
포스코대우	76	16	2,856	6.6	1.6	62.1	0	잔류
두산중공업	78	17	2,756	17.3	1.5	63.6	0	잔류
한화테크윈	79	18	2,725	26.4	1.5	65.1	0	잔류
한전KPS	80	19	2,720	7.9	1.5	66.5	0	잔류
한화	81	20	2,707	8.5	1.5	68.0	0	잔류
대우건설	86	21	2,497	5.8	1.4	69.4	0	잔류
대한항공	91	22	2,194	14.2	1.2	70.6	0	잔류
팬오션	92	23	2,193	10.6	1.2	71.8		신규편입
삼성엔지니어링	93	24	2,178	23.4	1.2	73.0	0	잔류
두산	94	25	2,175	5.5	1.2	74.2	0	잔류
GS건설	98	26	2,016	11.6	1.1	75.3		신규편입
LS	102	27	1,943	6.7	1.1	76.3	0	잔류
LIG넥스원	107	28	1,850	8.9	1.0	77.3		신규편입
대우조선해양	113	29	1,723	0.9	0.9	78.3	0	편출제외
두산인프라코어	114	30	1,710	28.6	0.9	79.2	0	잔류
대한전선	115	31	1,707	1.5	0.9	80.2		신규편입
현대로템	118	32	1,692	4.5	0.9	81.1	0	잔류
SK네트웍스	119	33	1,683	6.2	0.9	82.0	0	잔류
현대엘리베이	128	34	1,506	7.2	0.8	82.8	0	잔류
아이에스동서	131	35	1,469	4.4	8.0	83.6	0	잔류

주: 4/24일 종가, 시가총액, 거래대금 기준. 종목별 경제섹터 분류는 KRX 고시 GICS 기준 섹터구분을 반영 자료: KRX, 하나금융투자



시황저격

표 8. 산업재 섹터 KOSPI200 구성종목 편출입 여부 검토 (2)

종목명	KOSPI 시총 순위	섹터 시총 <del>순위</del>	평균 시총 (십억원)	평균 거래대금 (십억원)	종목 시총 비중(%)	누적 시총 비중(%)	현 K200 여부	6월 K200 판단
현대미포조선	133	36	1,451	11.0	0.8	84.4	0	잔류
LS산전	142	37	1,307	3.3	0.7	85.1	0	잔류
LG상사	144	38	1,288	5.2	0.7	85.8	0	잔류
현대상선	146	39	1,212	23.7	0.7	86.5		
한전기술	157	40	1,033	3.2	0.6	87.1	0	잔류
한진칼	161	41	1,006	9.1	0.6	87.6		
LG하우시스	164	42	957	6.3	0.5	88.1	0	잔류
아시아나항공	173	43	919	5.0	0.5	88.6		
한국단자	186	44	804	1.0	0.4	89.1	0	잔류
제주항공	193	45	770	3.0	0.4	89.5		
코오롱	203	46	701	4.1	0.4	89.9		
경동나비엔	213	47	625	3.1	0.3	90.2		
대한해운	240	48	479	3.9	0.3	90.5		
아이마켓코리아	252	49	438	2.4	0.2	90.7		
태영건설	254	50	426	0.6	0.2	91.0		
한진중공업	268	51	399	1.7	0.2	91.2	0	편출제외
퍼시스	279	52	379	0.0	0.2	91.4		
알루코	280	53	373	2.9	0.2	91.6	0	편출제외
한진	292	54	354	2.7	0.2	91.8		
씨에스윈드	294	55	351	1.4	0.2	92.0		
조선내화	297	56	345	0.1	0.2	92.2		
벽산	299	57	343	2.9	0.2	92.4	0	편출제외
금호산업	301	58	341	1.5	0.2	92.5		
일진홀딩스	315	59	311	1.3	0.2	92.7		
삼영무역	316	60	309	0.6	0.2	92.9		
S&T중공업	318	61	309	0.6	0.2	93.0	0	편출제외
세방	324	62	301	0.4	0.2	93.2		
AJ네트웍스	327	63	296	1.0	0.2	93.4		
진흥기업	333	64	288	0.2	0.2	93.5		
현대상사	338	65	285	1.0	0.2	93.7		

주: 4/24일 좋가, 시가총액, 거래대금 기준. 종목별 경제섹터 분류는 KRX 고시 GICS 기준 섹터구분을 반영 자료: KRX, 하나금융투자

## (2) 자유소비재(Consumer Discretionary)

자유소비재 섹터 내 누적시가총액 기준 80%와 거래대금 기준 섹터 내 85%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은 24위 넥센타이어까지다. 현재 KOSPI200 내 자유소비재 섹터 해당 종목은 37개로 90% 이내는 33위 영원무역홀딩스, 110% 이내는 40위 동아타이어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CJ CGV/이노션/롯데하이마트/휠라코리아/하나투어/스카이라이프/영원무역홀딩스의 신규편입 가능성이 유력하며, 세방전지/SBS/경방/현대리바트/일신방직/조광피혁의 편출제외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도레이케미칼은 시총 기준으론 신규편입 가능영역에 근접해 있으나, 거래대금은 섹터 내 159위(거래대금 85% 기준 최소 순위는 140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고로, 신규편입 가능성은 희박하다.

표 9. 자유소비재 섹터 KOSPI200 구성종목 편출입 여부 검토 (1)

종목명	KOSPI 시총	섹터 시총	평균 시총	평균 거래대금	종목 시총	누적 시총	현 K200	6월 K200
₩LII+I	순위	<u>순위</u>	(십억원)	(십억원)	비중(%)	비중(%)	여부	판단
현대차	3	1	30,943	72.4	17.1	17.1	0	자류 자류
현대모비스	7	2	25,069	46.0	13.9	31.0	0	잔류
기아차	15	3	16,245	37.2	9.0	40.0	0	잔류
LG전자	30	4	9,005	46.1	5.0	45.0	0	잔류 
강원랜드	32	5	8,133	12.3	4.5	49.5	0	잔류 
코웨이	37	6	7,074	17.4	3.9	53.4	0	잔류
한국타이어	38	7	6,942	15.1	3.8	57.2	0	잔류
롯데쇼핑	40	8	6,808	19.0	3.8	61.0	0	잔류
한온시스템	45	9	5,538	11.6	3.1	64.0	0	잔류
한샘	59	10	4,444	12.4	2.5	66.5	0	잔류
현대백화점	84	11	2,659	9.3	1.5	68.0	0	잔류
만도	88	12	2,327	16.0	1.3	69.3	0	잔류
호텔신라	95	13	2,159	22.3	1.2	70.5	0	잔류
현대위아	96	14	2,119	11.1	1.2	71.6	0	잔류
제일기획	101	15	1,955	6.5	1,1	72.7	0	잔류
신세계	108	16	1,845	8.5	1.0	73.7	0	잔류
CJ CGV	117	17	1,695	12.3	0.9	74.7		신규편입
영원무역	130	18	1,479	5.9	0.8	75.5	0	잔류
금호타이어	132	19	1,464	9.5	8.0	76.3	0	잔류
현대홈쇼핑	134	20	1,418	3.3	0.8	77.1	0	잔류
GKL	135	21	1,417	6.6	0.8	77.9	0	잔류
쿠쿠전자	138	22	1,364	2.5	0.8	78.6	0	잔류
이노션	139	23	1,349	3.7	0.7	79.4		신규편입
넥센타이어	141	24	1,321	2.0	0.7	80.1	0	잔류
한세실업	150	25	1,099	7.8	0.6	80.7	0	잔류
롯데하이마트	151	26	1,088	3.1	0.6	81.3		신규편입
쌍 <del>용</del> 차	155	27	1,036	1.0	0.6	81.9	0	잔류
휠라코리아	168	28	933	2.4	0.5	82.4		신규편입
도레이케미칼	176	29	900	0.1	0.5	82.9		
한섬	177	30	888	2.5	0.5	83.4	0	잔류

주: 4/24일 종가, 시가총액, 거래대금 기준. 종목별 경제섹터 분류는 KRX 고시 GICS 기준 섹터구분을 반영 자료: KRX,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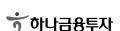


표 10. 자유소비재 섹터 KOSPI200 구성종목 편출입 여부 검토 (2)

종목명	KOSPI 시총 순위	섹터 시총 <del>순</del> 위	평균 시총 (십억원)	평균 거래대금 (십억원)	<del>종목</del> 시총 비중(%)	누적 시총 비중(%)	현 K200 여부	6월 K200 판단
하나투어	181	31	861	8.0	0.5	83.9		신규편입
스카이라이프	187	32	802	1.3	0.4	84.3		신규편입
영원무역홀딩스	189	33	797	0.4	0.4	84.7		신규편입
S&T모티브	195	34	746	2.9	0.4	85.2	0	·····································
CJ헬로비전	198	35	719	1.6	0.4	85.6		
 대교	201	36	708	0.7	0.4	85.9	0	잔류
한라홀딩스	202	37	703	2.9	0.4	86.3	0	잔류
LF	210	38	639	1.8	0.4	86.7	0	_ ·· 잔류
에스엘	216	39	619	2.0	0.3	87.0	0	_ ·· 잔류
동아타이어	220	40	600	0.5	0.3	87.4	0	잔류
신세계푸드	221	41	573	2.1	0.3	87.7		
엔에스쇼핑	223	42	554	1.5	0.3	88.0		
세방전지	230	43	523	0.7	0.3	88.3	0	편출제외
신세계인터내셔날	237	44	496	2.2	0.3	88.5		
SBS	244	45	466	0.9	0.3	88.8	0	편출제외
한세예스24홀딩스	248	46	452	0.7	0.3	89.1		
경방	249	47	450	1.1	0.2	89.3	0	편출제외
현대리바트	251	48	441	2.4	0.2	89.5	0	편출제외
화승엔터프라이즈	255	49	424	2.6	0.2	89.8		
현대에이치씨엔	257	50	416	0.7	0.2	90.0		
용평리조트	260	51	411	5.9	0.2	90.2		
넥센	263	52	409	0.4	0.2	90.5		
광주신세계	267	53	401	0.1	0.2	90.7		
SBS미디어홀딩스	270	54	395	0.3	0.2	90.9		
서연이화	275	55	387	1.4	0.2	91.1		
코리아오토글라스	284	56	366	1.2	0.2	91.3		
롯데관광개발	285	57	365	0.4	0.2	91.5		
웅진씽크빅	298	58	344	1.1	0.2	91.7		
모토닉	322	59	302	0.1	0.2	91.9		
대원강업	323	60	301	0.2	0.2	92.1		
일신방직	325	61	300	0.3	0.2	92.2	0	편출제외
IHQ	326	62	296	2.8	0.2	92.4		
쌍방울	334	63	288	9.6	0.2	92.5		
현대EP	336	64	288	1.2	0.2	92.7		
조광피혁	340	65	281	0.5	0.2	92.9	0	편출제외

주: 4/24일 종가, 시가총액, 거래대금 기준. 종목별 경제섹터 분류는 KRX 고시 GICS 기준 섹터구분을 반영 자료: KRX, 하나금융투자

## (3) 소재(Materials)

소재 섹터 내 누적시가총액 기준 80%와 거래대금 기준 섹터 내 85%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은 24위 AK홀딩스까지다. 현재 KOSPI200 내 소재 섹터 해당 종목은 34개로 90% 이 내는 30위 화승인더, 110% 이내는 37위 유니드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AK홀딩스/화승인더의 신규편입과 버퍼 1, 3에 근거한 한국철강/삼광글라스/국도화학의 편출제외를 예상한다. 세아홀딩스는 시총 기준으론 신규편입 가능영역에 근접해있으나, 거래대금은 섹터 내 147위 (거래대금 85% 기준 최소 순위는 135위)에 불과하다. 신규편입 가능성은 희박하다.

표 11. 소재 섹터 KOSPI200 구성종목 편출입 여부 검토

종목명	KOSPI 시총 순위	섹터 시총 순위	평균 시총 (십억원)	평균 거래대금 (십억원)	<del>종목</del> 시총 비중(%)	누적 시총 비중(%)	현 K200 여부	6월 K200 판단
POSCO	8	1	21,527	81.5	17.6	17.6	0	 잔류
LG화학	13	2	17,556	65.4	14.4	31.9	0	잔류
롯데케미칼	23	3	11,177	38.7	9.1	41.1	0	잔류
고려아연	31	4	8,945	23.6	7.3	48.4	0	잔류
현대제철	36	5	7,175	23.5	5.9	54.3	0	잔류
효성	54	6	4,707	19.7	3.8	58.1	0	잔류
한화케미칼	61	7	4,186	27.3	3.4	61.5	0	잔류
금호석유	90	8	2,215	11.8	1.8	63.3	0	 잔류
OCI	97	9	2,096	19.9	1.7	65.1	0	 잔류
코오롱인더	105	10	1,909	11.0	1.6	66.6	0	 잔류
 영풍	106	11	1,902	1.7	1.6	68.2	0	 잔류
SK케미칼	125	12	1,595	7.9	1.3	69.5	0	ᆫ 잔류
대한유화	126	13	1,566	8.6	1.3	70.8	0	고 :: 잔류
동원시스템즈	129	14	1,499	1.3	1.2	72.0	0	ᆫ 잔류
쌍용양회	137	15	1,373	3.1	1.1	73.1	0	ᆫ 잔류
SKC	149	16	1,115	5.5	0.9	74.0	0	 전류
풍산	158	17	1,022	5.8	0.8	74.9	0	전류 잔류
태광산업	160	18	1,010	0.7	0.8	75.7	0	전류
동국제강	163	19	975	5.1	0.8	76.5	0	전류
세아베스틸	170	20	925	1.4	0.8	77.2	0	잔류
한솔케미칼	174	21	917	4.0	0.7	78.0	0	 전류
휴켐스	178	22	885	2.7	0.7	78.7	0	간류 잔류
ㅠㅁ— 롯데정밀화학	184	23	840	2.5	0.7	79.4	0	간류 잔류
AK홀딩스	190	24	795	2.4	0.6	80.0	O	신규편입
락앤락	194	25	750	2.4	0.6	80.7	0	잔류
동양	199	26	719	2.8	0.6	81.2	0	 전류
고려제강	200	27	714	0.5	0.6	81.8	0	간류 잔류
후성 후성	208	28	655	9.1	0.5	82.4	0	전류 잔류
한일시멘트	214	29	624	1.2	0.5	82.9	0	간류 잔류
화승인더	224	30	549	6.7	0.4	83.3		신규편입
세아홀딩스	234	31	506	0.1	0.4	83.7		21128
세이제강	235	32	502	2.0	0.4	84.1	0	잔류
세의세 6 송원산업	250	33	449	3.3	0.4	84.5	O	Ľπ
남해화학	253	34	433	0.6	0.4	84.9	0	잔류
현대시멘트	259	35	414	0.5	0.4	85.2	O	Ľπ
한솔제지	264	36	407	1.5	0.3	85.5		
유니드	266	37	407	0.6	0.3	85.9	0	잔류
유닉트 동부제철	283	38	367	0.0	0.3	86.2	0	ਪੰਜ
		39		0.2	0.3		0	ᇤᄎᆌ이
한국철강 풍산홀딩스	287 289	39 40	361 359		0.3	86.5	0	편출제외
	289 291	-	359	0.3 3.3		86.8		
애경유화		41			0.3	87.0		ᆏᅕᆌᄭ
삼광글라스	302	42	340	0.7	0.3	87.3	0	편출제외
율촌화학	304	43	339	0.3	0.3	87.6		
미원에스씨	310	44	322	0.2	0.3	87.9		TH + TUO!
국도화학	312 <sup>통앤</sup> 거래대근 기주 종모	45	320	0.8	0.3	88.1	0	편출제외

주: 4/24일 종가, 시가총액, 거래대금 기준. 종목별 경제섹터 분류는 KRX 고시 GICS 기준 섹터구분을 반영

자료: KRX, 하나금융투자



## (4) 필수소비재(Consumer Staples)

필수소비재 섹터 내 누적시가총액 기준 80%와 거래대금 기준 섹터 내 85%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은 15위 한국콜마까지다. 현재 KOSPI200 내 필수소비재 섹터 해당 종목은 30 개로 90% 이내는 27위 무학, 110% 이내는 33위 풀무원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동서/동원산업/잇츠스킨의 신규편입과 버퍼 1, 3에 근거한 팜스코/에이블씨엔씨/하이트진로홀딩스의 편출제외를 예상한다. 다만, 32위 남양유업 거래대금이 섹터 내 54위(거래대금 85% 기준 최소 순위는 57위)에 불과하다는 점에선 우선적 컷오프 대상이 될 우려가 잔존한다.

표 12. 필수소비재 섹터 KOSPI200 구성종목 편출입 여부 검토

종목명	KOSPI 시총	섹터 시총	평균 시총	평균 거래대금	종목 시총	누적 시총	현 K200	6월 K200
	순위	순위	(십억원)	(십억원)	비 <del>중</del> (%)	비중(%)	여부	판단
아모레퍼시픽	11	1	20,359	54.9	16.7	16.7	0	잔류
KT&G	17	2	15,268	37.8	12.5	29.2	0	잔류
LG생활건강	19	3	14,245	43.6	11.7	40.8	0	잔류
아모레G	21	4	11,407	20.7	9.3	50.2	0	잔류
이마트	49	5	5,100	18.9	4.2	54.4	0	잔류
CJ제일제당	52	6	4,856	14.2	4.0	58.3	0	잔류
BGF리테일	55	7	4,645	12.1	3.8	62.2	0	잔류
오리온	58	8	4,502	14.2	3.7	65.8	0	잔류
GS리테일	65	9	3,846	9.6	3.2	69.0	0	잔류
동서	74	10	2,878	1.9	2.4	71.3		신규편입
롯데제과	82	11	2,678	5.7	2.2	73.5	0	잔류
오뚜기	85	12	2,514	3.8	2.1	75.6	0	잔류
농심	99	13	1,977	8.4	1.6	77.2	0	잔류
롯데칠성	103	14	1,928	4.6	1.6	78.8	0	잔류
한국콜마	112	15	1,724	10.5	1.4	80.2	0	잔류
현대그린푸드	122	16	1,647	3.1	1.3	81.6	0	잔류
SPC삼립	124	17	1,602	3.1	1.3	82.9	0	잔류
하이트진로	127	18	1,535	4.7	1.3	84.1	0	잔류
코스맥스	143	19	1,291	11.8	1.1	85.2	0	잔류
동원산업	152	20	1,075	0.8	0.9	86.1		신규편입
삼양홀딩스	153	21	1,069	1.7	0.9	86.9	0	잔류
삼양사	154	22	1,041	2.0	0.9	87.8	0	잔류
롯데푸드	166	23	955	2.5	8.0	88.6	0	잔류
대상	167	24	945	4.5	8.0	89.4	0	잔류
잇츠스킨	171	25	923	3.4	0.8	90.1		신규편입
동원F&B	180	26	864	1.8	0.7	90.8	0	잔류
무학	205	27	676	0.9	0.6	91.4	0	잔류
빙그레	212	28	629	1.7	0.5	91.9	0	잔류
한국콜마홀딩스	217	29	617	3.6	0.5	92.4		
해태제과식품	219	30	614	5.4	0.5	92.9		
농심홀딩스	226	31	543	0.6	0.4	93.3		
남양유업	229	32	525	0.5	0.4	93.8	0	잔류
풀무원	232	33	510	0.4	0.4	94.2		
크라운제과	239	34	482	7.4	0.4	94.6		
팜스코	243	35	470	1.6	0.4	95.0	0	편출제외
토니모리	245	36	459	4.5	0.4	95.3		
대상홀딩스	262	37	409	0.8	0.3	95.7		
코스맥스비티아이	265	38	407	1.3	0.3	96.0		
에이블씨엔씨	276	39	385	4.7	0.3	96.3	0	편출제외
사조산업	308	40	329	1.3	0.3	96.6		
삼양식품	317	41	309	5.2	0.3	96.8		
대한제분	321	42	303	0.2	0.2	97.1		
하이트진로홀딩스	335	43	288	0.3	0.2	97.3	0	편출제외
신라교역	373	44	238	0.2	0.2	97.5		
선진	378	45	232	0.4	0.2	97.7		

주: 4/24일 종가, 시가총액, 거래대금 기준. 종목별 경제섹터 분류는 KRX 고시 GICS 기준 섹터구분을 반영



## (5) 건강관리(Healthcare)

건강관리 섹터 내 누적시가총액 기준 80%와 거래대금 기준 섹터 내 85%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은 17위 JW홀딩스까지다. 현재 KOSPI200 내 건강관리 섹터 해당 종목은 18개로 90% 이내는 16위 한올바이오파마, 110% 이내는 20위 광동제약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신규상장 특례편입)/녹십자홀딩스/JW홀딩스의 신규편입과 버퍼 1, 3에 근거한 광동제약/서흥/일동홀딩스의 편출제외를 예상한다.

표 13. 건강관리 섹터 KOSPI200 구성종목 편출입 여부 검토

종목명	KOSPI 시총 순위	섹터 시총 순위	평균 시총 (십억원)	평균 거래대금 (십억원)	종목 시총 비중(%)	누적 시총 비중(%)	현 K200 여부	6월 K200 판단
삼성바이오로직스	25	1	10.839	74.6	22.8	22.8		 신규편입
한미사이언스	44	2	5,628	18.1	11.8	34.7	0	전류 전류
한미약품	56	3	4,642	49.1	9.8	44.4	0	_ :: 잔류
유한양행	77	4	2,793	9.6	5.9	50.3	0	_ ·· 잔류
녹십자	104	5	1,915	6.8	4.0	54.3	0	잔류
영진약품	109	6	1,770	54.1	3.7	58.1	0	잔류
녹십자 <del>홀</del> 딩스	140	7	1,329	2.9	2.8	60.9		신규편입
제일약품	147	8	1,189	11.4	2.5	63.4	0	잔류
JW중외제약	156	9	1,036	18.0	2.2	65.5	0	잔류
부광약품	159	10	1,011	5.2	2.1	67.7	0	잔류
종근당	162	11	991	6.8	2.1	69.7	0	잔류
대웅제약	165	12	957	6.2	2.0	71.8	0	잔류
동아에스티	179	13	880	4.5	1.9	73.6	0	잔류
동아쏘시오홀딩스	182	14	852	4.7	1.8	75.4	0	잔류
일양약품	183	15	842	10.2	1.8	77.2	0	잔류
한올바이오파마	185	16	835	14.3	1.8	78.9	0	잔류
JW홀딩스	211	17	632	4.9	1.3	80.3		신규편입
대웅	218	18	614	1.0	1.3	81.6		
보령제약	233	19	508	2.1	1.1	82.6	0	잔류
광동제약	242	20	472	1.5	1.0	83.6	0	편출제외
삼진제약	246	21	456	1.6	1.0	84.6		
서흥	247	22	453	8.0	1.0	85.5	0	편출제외
덴티움	269	23	397	9.4	8.0	86.4		
이연제약	274	24	387	0.7	8.0	87.2		
종근당홀딩스	286	25	362	1.3	8.0	87.9		
경보제약	288	26	360	4.4	8.0	88.7		
대원제약	293	27	353	1.5	0.7	89.4		
한독	295	28	349	8.0	0.7	90.2		
일동제약	296	29	348	2.1	0.7	90.9		
신풍제약	300	30	343	2.8	0.7	91.6		
일동홀딩스	305	31	337	2.3	0.7	92.3	0	편출제외

주: 4/24일 종가, 시가총액, 거래대금 기준. 종목별 경제섹터 분류는 KRX 고시 GICS 기준 섹터구분을 반영

자료: KRX, 하나금융투자

## (6) 정보기술/통신(IT/Telecom)

정보기술/통신 섹터 내 누적시가총액 기준 80%와 거래대금 기준 섹터 내 85%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은 4위 SK텔레콤까지다. 현재 KOSPI200 내 정보기술/통신 섹터 해당 종목은 17개로 90% 이내는 15위 동부하이텍, 110% 이내는 18위 신도리코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버퍼 2 기준에 의거한 NHN엔터테인먼트/다우기술의 신규편입과 버퍼 1, 3에 따른 대덕전자/한솔테크닉스의 편출제외를 예상한다.

1차 자료 발간 이후 두 가지 업데이트 사항이 추가됐다. 5/12일 상장예정인 넷마블게임즈의 공모가격이 희망공모가  $121,000 \sim 157,000$ 원 밴드 최상단인 157,000원으로 최종확정됐다. 이 경우 상장 후 시가총액은 13.3조원에 달할 전망인데, 이는 삼성화재(평균 시총 13.0조원)를 넘어서는 KOSPI 20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6월 K200 신규상장 특례편입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더불어, 최근 카카오가 KOSDAQ에서 KOSPI로의 이전상장 계획을 발표했다. 카카오 시총은 현재 6.1조원 수준으로 KOSPI 50위 컷오프 시총 레벨인 5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다만, 신규상장 특례편입 규정 적용을 위해선 15 거래일 유지조건이 요구된다. 이전상장 시기에 따라 6월 K200 특례편입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표 14. 정보기술/통신 섹터 KOSPI200 구성종목 편출입 여부 검토

종목명	KOSPI 시총 순위	섹터 시총 순위	평균 시총 (십억원)	평균 거래대금 (십억원)	종목 시총 비중(%)	누적 시총 비중(%)	현 K200 여부	6월 K200 판단
삼성전자	1	1	243,293	416.8	63.3	63.3	0	잔류
SK하이닉스	4	2	30,545	141.8	7.9	71.2	0	잔류
NAVER	5	3	26,041	75.0	6.8	78.0	0	잔류
SK텔레콤	12	4	18,351	33.3	4.8	82.8	0	잔류
삼성에스디에스	22	5	11,196	20.3	2.9	85.7	0	잔류
LG디스플레이	27	6	10,393	39.7	2.7	88.4	0	잔류
KT	34	7	8,099	16.3	2.1	90.5	0	잔류
삼성SDI	35	8	7,653	29.9	2.0	92.5	0	잔류
엔씨소프트	43	9	5,989	41.9	1.6	94.0	0	잔류
LG유플러스	48	10	5,250	16.3	1.4	95.4	0	잔류
	63	11	4,027	23.8	1.0	96.5	0	 잔류
LG이노텍	89	12	2,233	16.1	0.6	97.0	0	잔류
NHN엔터테인먼트	148	13	1,118	4.9	0.3	97.3		신규편입
다우기술	169	14	931	3.9	0.2	97.6		신규편입
동부하이텍	188	15	799	8.5	0.2	97.8	0	잔류
더존비즈온	206	16	671	2.6	0.2	97.9		
일진머티리얼즈	215	17	621	5.9	0.2	98.1	0	잔류
신도리코	228	18	526	0.6	0.1	98.2	0	잔류
케이씨텍	236	19	497	1.9	0.1	98.4		
대덕전자	272	20	394	0.9	0.1	98.5	0	편출제외
한미반도체	278	21	380	1.5	0.1	98.6		
한솔테크닉스	281	22	373	3.7	0.1	98.7	0	편출제외
자화전자	339	23	282	1.8	0.1	98.7		
대덕GDS	350	24	264	1.2	0.1	98.8		
코리아써키트	363	25	250	2.1	0.1	98.9		

주: 4/24일 종가, 시가총액, 거래대금 기준. 종목별 경제섹터 분류는 KRX 고시 GICS 기준 섹터구분을 반영

## (7) 에너지(Energy)

에너지 섹터 내 누적시가총액 기준 80%와 거래대금 기준 섹터 내 85%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은 2위 S-Oil까지다. 현재 KOSPI200 내 에너지 섹터 해당 종목은 4개로 90% 이내는 3위 GS, 110% 이내는 4위 SK가스가 해당되나 SK가스는 기존종목이 아닌 관계로 신규편입될 여지는 제한적이다. 한국쉘석유(전체 시총 222위)는 버퍼 3 기준에 의거 잔류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미한 거래대금(섹터 내 6위에 해당. 거래대금 85% 기준 최소 순위는 5~6위)이 막판 발목을 잡을 여지가 존재한다.

표 15. 에너지 섹터 KOSPI200 구성종목 편출입 여부 검토

종목명	KOSPI 시총 순위	섹터 시총 순위	평균 시총 (십억원)	평균 거래대금 (십억원)	종목 시총 비중(%)	누적 시총 비중(%)	현 K200 여부	6월 K200 판단
SK이노베이션	18	1	14,249	40.5	47.0	47.0	0	잔류
S-Oil	28	2	9,349	25.4	30.8	77.9	0	잔류
GS	51	3	4,894	9.1	16.1	94.0	0	잔류
SK가스	172	4	922	1.9	3.0	97.1		
한국쉘석유	222	5	565	0.7	1.9	98.9	0	잔류
키위미디어그룹	444	6	172	11.3	0.6	99.5		
미창석유	471	7	155	0.1	0.5	100.0		

주: 4/24일 종가, 시가총액, 거래대금 기준. 종목별 경제섹터 분류는 KRX 고시 GICS 기준 섹터구분을 반영

자료: KRX, 하나금융투자

## (8) 금융/부동산(Financials/Real Estate)

금융/부동산 섹터 내 누적시가총액 기준 80%와 거래대금 기준 섹터 내 85%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은 15위 삼성증권까지다. 현재 KOSPI200 내 금융/부동산 섹터 해당 종목은 18개로 90% 이내는 16위 한국금융지주, 110% 이내는 20위 KB손해보험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6월 정기변경시 구성종목 변화는 없을 것이다.

표 16. 금융/부동산 섹터 KOSPI200 구성종목 편출입 여부 검토

종목명	KOSPI 시 <del>총</del> 순위	섹터 시총 순위	평균 시총 (십억원)	평균 거래대금 (십억원)	<del>종목</del> 시총 비중(%)	누적 시총 비중(%)	현 K200 여부	6월 K200 판단
삼성생명	9	1	21,439	22.7	13.8	13.8	0	 잔류
신한지주	10	2	20,582	39.3	13.3	27.1	0	잔류
KB금융	14	3	16,870	42.1	10.9	37.9	0	잔류
삼성화재	20	4	13,044	22.6	8.4	46.3	0	잔류
하나금융지주	29	5	9,312	32.2	6.0	52.3	0	잔류
우리은행	33	6	8,104	18.5	5.2	57.6	0	잔류
기업은행	39	7	6,911	15.6	4.5	62.0	0	잔류
한화생명	47	8	5,360	4.3	3.5	65.5	0	잔류
삼성카드	50	9	4,997	7.3	3.2	68.7	0	잔류
동부화재	53	10	4,718	10.2	3.0	71.7	0	잔류
미래에셋대우	68	11	3,552	17.5	2.3	74.0	0	잔류
현대해상	71	12	2,973	10.9	1.9	75.9	0	잔류
NH투자증권	72	13	2,964	11.9	1.9	77.8	0	잔류
BNK금융지주	73	14	2,886	7.5	1.9	79.7	0	잔류
삼성증권	83	15	2,671	10.0	1.7	81.4	0	잔류
한국금융지주	87	16	2,444	5.3	1.6	83.0	0	잔류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100	17	1,970	2.6	1.3	84.2	0	잔류
메리츠종금증권	110	18	1,755	8.4	1.1	85.4	0	잔류
메리츠화재	111	19	1,727	2.1	1.1	86.5		
KB손해보험	116	20	1,703	8.7	1.1	87.6		

주: 4/24일 종가, 시가총액, 거래대금 기준. 종목별 경제섹터 분류는 KRX 고시 GICS 기준 섹터구분을 반영



## (9) 유틸리티(Utility)

유틸리티 섹터 내 누적시가총액 기준 80%와 거래대금 기준 섹터 내 85%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은 시총 1위 한국전력 하나다. 현재 KOSPI200 내 유틸리티 섹터 해당 종목은 2 개로 90% 이내는 1위 한국전력, 110% 이내는 2위 한국가스공사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6월 정기변경시 구성종목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표 17. 유틸리티 섹터 KOSPI200 구성종목 편출입 여부 검토

종목명	KOSPI 시총 순위	섹터 시 <del>총</del> <del>순위</del>	평균 시총 (십억원)	평균 거래대금 (십억원)	종목 시총 비중(%)	누적 시총 비중(%)	현 K200 여부	6월 K200 판단
한국전력	2	1	32,552	67.0	80.7	80.7	0	잔류
한국가스공사	62	2	4,118	8.5	10.2	90.9	0	잔류
지역난방공사	192	3	773	0.7	1.9	92.8		
E1	256	4	420	0.3	1.0	93.9		
삼천리	258	5	414	0.4	1.0	94.9		
서울가스	261	6	410	0.0	1.0	95.9		
부산가스	277	7	381	0.1	0.9	96.9		
경동가스	353	8	259	0.2	0.6	97.5		
예스코	383	9	227	0.1	0.6	98.1		
대성에너지	441	10	174	0.2	0.4	98.5		

주: 4/24일 종가, 시가총액, 거래대금 기준. 종목별 경제섹터 분류는 KRX 고시 GICS 기준 섹터구분을 반영